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질문의원 : 조기만 의원

1. 이태원 참사 대비 안전관리 계획은?

-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할로인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전날인 10월 28일 예도 인파에 의한 신고가 여러 기관에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6호선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이태원로 일대 도로 통제 및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인재에 의한 이태원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강서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최, 주관기관이 없는 지역 축제에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만 해당 계획이 얼마나 실행력이 갖는지가 중요할 것임.
 - 이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람.
 - 1) 조례제정,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시행 후 진행된 행사는 무엇이 있으며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반영한 결과는 어땠는지?
 - 2) 과거 행사에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은 어떠했는지?
- <안전관리과>

2. 주거밀집지역 및 노후주택 화재 예방 관심 경주 촉구

- 지난달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던 나이지리아인 4남매가 화재로 사망했음. 해당 피해 가족은 2년 전에도 비슷한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소방 및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지탄받고 있음.
-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화곡동 봉제산에서 산불 진압 모의 훈련에 참여했음. 물론 봄철 건조기는 산불발생 위험 기간이지만, 우리 구의 임야면적은 약 274만 제곱미터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위에 불과함.
- 반면 우리 구에서 준공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수는 2021년 기준 총 80,716채로 노원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구청장은 산림화재에 비해 주거밀집지역 또는 노후주택 화재 대응에 얼마나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단순 숫자만 비교하더라도 집행부의 화재 예방 정책은 노후주택에 보다 집중해야 타당할 것임.
- 실제로 대구 서부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주거밀집지역 대응훈련을 했음. 지난해 발생한 대구지역 주택화재가 167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데 따른 훈련임.
- 우리 구에서는 주거밀집지역 화재 발생 추이가 어떤지, 그에 걸맞은 대응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거시설 주요 화재 요인인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도로가 좁고 주차면수가 부족한 우리 구의 특성상 소방대원의 현장도착시간을 단축

하기 위해 수방차량 진입을 도울 방안은 없는지, 구민들께 화재 발생시 대피 및 구조행동 등 소방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추진전략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주차관리과>